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5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생활개선제주시서부지부회 물품 기탁-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생활개선 서부지부회, 물품 후원-12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 후원 물품 지정기탁-9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신문
○	생활개선회 제주 서부지부, 물품 기탁-12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회 물품 나눔-14면	제주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기고] 성공 농업 위한 출발, 실용 교육 참여에서-15면(김윤정)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춥다, 따뜻했다' … 기온 변동폭 가장 컸다-4면	-	뉴제주일보
○	양배추 가격하락 "전남부터 수급조절을" -2면	-	제민일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온다-2면	-	제주매일
○	수입 오렌지 관세 인하… 제주 만감류 영향 받나-6면	-	한라일보
○	감귤값 고공행진, 농가 안심은 금물-15면	-	제주일보
○	감자 심기 분주-1면	-	뉴제주일보
○	콜라비 수확 한창-2면	-	한라일보

(한라일보: 2024년 1월 5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서귀포 관내 지역별 농협과 마을회관 등에서 1585명을 대상으로 총 19회 이뤄지며, 교육 참석 시 교육 이수 2시간이 인정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4년 농정시책 및 시범사업 안내, 탄소중립 실천 및 농작업 안전관리, 노지감귤·만감류 재배기술 교육 등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등 관련 내용은 농촌자원팀(760-7824)으로 문의하거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한라일보 2

(제민일보: 2024년 1월 5일)

○ 생활개선제주시서부지부회 물품 기탁-8면

생활개선제주시서부지부회 물품 기탁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서부지부회(회장 윤희숙)는 최근 외도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4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1.5.
제민일보 8

(제주매일: 2024년 1월 5일)

○ 생활개선 서부지부회, 물품 후원-12면

생활개선 서부지부회, 물품 후원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회장 윤희숙)는 지난 3일 외도동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를 위해 후원물품(40만원 상당)을 지정 기탁했다. 1.5.

제주매일 12

(제주신문: 2024년 1월 5일)

○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 후원물품 지정기탁-9면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 후원물품 지정기탁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회장 윤희숙)는 지난 3일 외도동(동장 양경수)에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를 위해 4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정기탁했다.

외도동은 이날 기탁된 후원물품을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1.5.

제주신문 9

(제주일보: 2024년 1월 5일)

○ 생활개선회 제주 서부지부, 물품 기탁-12면

생활개선회 제주 서부지부, 물품 기탁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회장 윤희숙)는 지난 3일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주시 외도동(동장 양경수)**에 기탁했다.

1.5. 제주일보 12

(한라일보: 2024년 1월 5일)

○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회 물품 나눔-14면

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회 물품 나눔

(사)한국생활개선 제주시 서부지부회(회장 윤희숙)는 지난 3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동장 양경수)를 방문해 지역 내 거주하는 어려운 독거노인가구를 위해 4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정기탁했다.

1.5. 한라일보 14

(제민일보: 2024년 1월 5일)

○ [기고] 성공 농업 위한 출발, 실용 교육 참여에서-15면

독자기고

성공 농업 위한 출발, 실용 교육 참여에서

김윤정

1.5.
제민일보 15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백룡의 해를 맞이하며 설렘으로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일만 같은데 어느덧 십이지신의 한 바퀴를 돌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됐다. 예부터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하며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희망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1년의 계획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할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16회 835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시대별로 우리 농업의 변화상을 반영하며 매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한 해의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 영농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도출로 현안 과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돼 왔다.

올해에도 달라지는 농정시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성과 및 2024년 중점 추진방향,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와 더불어 서부지역 소득작목인 마늘, 양파, 양채류, 단호박, 만감류, 노지감귤 등 8개 작목에 대한 핵심 실천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

갑진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한 희망적인 농업 설계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보자. 농업인 스스로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미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제민일보: 2024년 1월 5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13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1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편 :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전자우편 : 농업기술센터 대표 전자우편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요,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5.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4년 1월 5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5.
제주매일 9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신문: 2024년 1월 5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신청기간 : 2024. 1. 2. ~ 1. 31.(30일간)
□신청방법
○방 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우 편 :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이메일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5.
제주신문 6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5일)

○ ‘춥다, 따뜻했다’ … 기온 변동폭 가장 컸다-4면

‘춥다, 따뜻했다’…기온 변동폭 가장 컸다

지난 12월 한 달간 변동폭 5도 달해 역대 최고…최고 17.2도-최저 0.4도 기록

제주의 지난해 12월 기온 변동폭(1~31일 일평균기온의 표준편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온 변동폭은 5도로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12월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10일로 17.2도였으며 가장 낮았던 날은 21일로 0.4도였다. 기온차는 16.8도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1.5. 뉴제주일보 4

고온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됨과 동시에 따뜻한 남풍까지 동반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월 9~10일 사이 4개 관측지점에서는 12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기록했다.

반면 12월 중후반기 저온 현상은 시베리아지역에서 상층 기압능이 동서로 폭넓게 빠른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공기 흐름이 남북방향 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북극 주변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제민일보: 2024년 1월 5일)

○ 양배추 가격하락 “전남부터 수급조절을”-2면

양배추 가격하락 “전남부터 수급조절을”

가락시장 경락가 ↓
한파·폭설 영향 커

무안 등 생산 늘어 물량 증가
“공동 시장격리 외 답 없어”

겨울 양배추 주산지가 제주에서 전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계획적인 분산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

겨울 양배추 주산지가 제주에서 전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계획적인 분산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

이제는 육지부 수확시기와 겹치는데다 작황이 좋고 생산량이 늘어난 올해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제주도가 전남도에 공동 수급조절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가락시장 양배추 경락가격(상품 8kg)은 12월 평균 6140원으로 전년동기 5770원보다 소폭 올랐지만 이는 지난 한파와 폭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배추 경락가는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2000~6000원 사이에 형성됐지만 한파가 닥친 12월 말 한때 8700원까지 오르며 10여일간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하지만 한파 후 최근 1주일만에 4500원대(4일)까지 급격히 가격이 떨어졌고, 중품은 3500원대, 하품은 2500원대로 더 심각한 실정이다.

문제는 올해 겨울 양배추 재배면적과 단수가 모두 증가한데다 제주지역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는 전남지역의 겨울 양배추 출하가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제주농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관측센터는 겨울 양배추 생산량이 전년 19만1557t에서 올해 20만5751t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배면적이 전년 3259ha에서 올해 3317ha로 1.8% 증가했고, 가을 태풍이 없고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양호해 단수도 5.5%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제주산 양배추 출하를 시작한 12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하고 1월에는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와 비슷한 생산면적을 가진 전남 지역은 상인을 통한 포전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계획적인 출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제주와의 공동 수급조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겨울 양배추는 예전에 제주가 70%를 점유하는 주산지였지만 최근 40% 정도로 줄어들었고 대신 유통비용이 훨씬 낮은 전남 무안 등에서 상인들에 의한 계약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1월까지 양배추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육지부는 상인들이 유통을 주도하다보니 계획 출하가 어렵고, 제주에서만 수급 조절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종 (사)제주양배추연합회장은 “제주에서만 출하 조절할 때는 가격지지 효과가 적었지만 2년 전 2월에 전남 지역과 공동으로 재배면적의 10%씩 동시에 시장격리를 실시해 4월말까지 가격 상승 효과를 상당히 본 적이 있다”며 “이대로는 가격 반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전남도와 공동 출하 조절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1.5. 제민일보 2

(제주매일: 2024년 1월 5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온다-2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온다 부족한 농촌현장 숨통 트나 기대

제주시, 다음 달부터 516명 유치해 만감류 수확 현장 등 배치

올해 제주시 농촌지역 일손을 덜어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여 명이 들어올 전망이다.

제주시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력난 타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월 단기적으로나마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농촌일손 확보 방안이다.

올 상반기에는 제주시가 지난해 10월 관내 26개 읍·면·동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희망 수요 조사에서 희망한 51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9농가 5,16명, 2022년 37농가·78명, 제주매일 2농가·35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올 상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은 156농가에 각각 배치돼 만감류 수확을 비롯해 마늘 등 밭작물 관리와 수확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를 찾아 농촌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에서도 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산농협에 고용돼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 명 이상 유치해 제주시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애리 기자

(한라일보: 2024년 1월 5일)

○ 수입 오렌지 관세 인하… 제주 만감류 영향 받나-6면

1.5.
한라일보 6

수입 오렌지 관세 인하… 제주 만감류 영향 받나

상반기 중 과일 30만t 수입
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정부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신선·냉동·가공 과일류 21종에 대해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상반기 내 수입과일 30만t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수입 오렌지가 대거 들어올 경우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는 한라봉 등 만감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과일가격의 안정을 위해 신선·냉동·가공 과일 21종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아보카도 1000t, 오렌지 5000t, 냉동딸기 6000t, 기타 1만5000t,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이다.

바나나의 경우 현행 세율 30%에서 0%, 오렌지는 현행 세율 50%에서 변경세율 10%가 적용된다. 정부는 채소와 축산물의 경우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을 총 6만t을 수입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중 0.4%포인트(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의 과일을 신속히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bu8365@ihalla.com

(제주일보: 2024년 1월 5일)

○ 감귤값 고공행진, 농가 안심은 금물-15면

제주포럼

〈1217〉

김 문 기

편집국 부국장 겸
서귀포 지사장

감귤값 고공행진, 농가 안심은 금물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을 꼽는다면 단연코 '감귤'이다. 다른 과일과 비교해 값이 싸고 야외에서 껍질을 벗겨먹기 쉽기에 서민들이 즐겨찾는다.

겨울을 맞은 제주의 과수원집 아이들은 주전부리로 매일 감귤을 먹으며 자랐다. 온가족이 방안에 둘러앉아 양푼 가득 담긴 감귤을 까먹다 보면 어느새 손톱은 노랗게 물들었다. 용돈이 없었고 지금처럼 상점도 많지 않았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류는 귀했다.

어릴적 연을 날리던 보리밭, 고구마를 심었던 밭에 감귤나무가 심어졌고, 세월이 더 흘러서는 감귤밭에 하우스 시설이 들어서

1.5.
제주일보 15

노지 감귤에 이어 하우스 감귤이 생산되고 만감류 재배가 확대되면서 감귤은 제주를 먹여살리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제주에서 재배하는 감귤은 크게 온주밀감과 만감류로 나뉜다. 비중은 온주밀감 80%, 만감류 20%다. 제주의 온주밀감은 1911년 프랑스 출신 신부이자 식물학자인 에밀 타케 신부가 일본에서 '미장온주' 묘목 14그루를 받아 서귀포시 서홍동에 심은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고정삼 전 제주대 교수가 2007년 펴낸 '제주감귤'에 '제주에 유배 온 박영효가 1907년 제주시 구남동에 1년간 살며 귤을 심어 농사지었다고 전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김태윤 한의학 박사는 최근 펴낸 '박람귤기'를 통해 박영효가 심은 귤은 '온주밀감'이 아닌 다른 품종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아직은 다수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귤은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재배가 확대됐는데 당시 생산량이 적어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감귤나무 두 그루만 있으면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어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다.

노지 감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9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2023년산 노지 감귤 평균가(5kg 기준)는 1만1877원으로 2022년산 9015원 대비 32%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3일까지 누계 평균 가격은 1만6900원으로 2022년산 1만600원 대비 59% 오르는 등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다.

2023년산 노지 감귤은 2022년산 42만8977t 대비 2577t(1%) 감소한 42만640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단감, 딸기 등 다른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분간 감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 명절(2월 10일)까지 고려하면 감귤 가격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지 감귤에 이어 만감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일조량이 좋아 전반적으로 당도가 높고, 산도가 적당해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9대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한라봉 평균가(3kg 기준)는 1만6676원으로 2022년 12월 평균 1만3295원 대비 22.6% 뛰었다. 레드향과 천혜향 가격도 각각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다.

2023년산 감귤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시장은 냉혹하다. 맛에 이상이 있거나 부패과가 1개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서울가락시장에서 경매된 노지 감귤(5kg 기준) 최저가는 3000원이다. 이날 최고가(4만1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매겨졌다.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선택받기 위해 품질 선별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5일)

○ 감자 심기 분주-1면

감자 심기 분주 4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밭에서 감자 심는 작업이 한창이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한라일보: 2024년 1월 5일)

○ 콜라비 수확 한창-2면

콜라비 수확 한창 4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콜라비를 수확하느라 분주한 손놀림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